

대학 교양과정을 위한 무용 교과목 개발*

김 정 숙**

Abstract

The Development of Dance Subjects for Liberal Education

Kim, Chung-sook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e vision of dance subjects as liberal arts that the university in the future may have is not wholly new, but rather it is that universities should examine the intrinsic meaning of liberal education and explore what the role of dance subjects is for the university education.

In order to put the future vision into practice this study makes the idea and position of liberal education clear and suggests a concrete applicable program about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dance subjects for liberal education. For the completion of this program some American and Japanese universities were selected that give much weight to the domain of art in the curriculum of the liberal education course and get the highest evaluation by producing a great many talented men. And then the examples of their operation of the curriculum were examined. It has been found that these universities have not only the firm philosophy that liberal education must be the core of the undergraduate education, but also have the concrete purpose and deepened contents of liberal education.

We have to consider three points so that the new program can be materialized. They are as follows: ① The basic idea of the curriculum of the liberal education course of universities should be seen in a fresh light. ② Fundamentally the university education centering on liberal education deepens the high school education. ③ The subjects of universities should assume the form suitable for the university educ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concrete applicable program about dance subjects in three aspects. They are as follows: ①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 of dance subjects; ② the division of their domain; ③ the way of completing the course.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I. 서론

미래의 대학에서 교양교과로서의 무용이 가질 수 있는 비전은 ‘교과’의 성격상¹⁾,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비전을 추구한다기보다는 대학 교양교육의 원래의 의미²⁾를 탐색하여 무용이 대학교육에서 해야 할 바를 추구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뜻이 아니라, 적절한 조정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성취 가능한, 오히려 적절한 조치에 의해 되찾아야 할 대학교양교육의 ‘원 위치’를 회복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대학 교육과정 구성상의 보편적인 기준은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조직하여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대학의 교육과정은 그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철학과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20세기를 지나며 대학교육에 대한 통념은 일반인은 물론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도 대학교육의 목적은 전문 직업인을 육성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왔다. 따라서 대학의 학과에서는 전공교육의 심화에 더욱 주력하여 왔으며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의 준비단계 정도로 그 가치가 과소평가 되어 왔다. 이제, 그렇게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가정·직장·사회의 일원으로서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소임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폭넓은 사고력과 적응력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며 여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에서 전공교육의 심화 자체가 문제될 수는 없는 것이며, 그렇다면 대학교육과정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교양과정에 대하여 고등교육과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종래의 교양교육에 관한 통념 - 전공교육의 ‘준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저학년에서 배우는 과목이며 질적 수준이 낮은 초보의 또는 입문의 교과목이라는 통념은 그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런데 교육이 모든 분야에서 인류의 知的 遺産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는 일이라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전공교육

1) 인류가 발전시켜 온 ‘知的 傳統’으로서 經典과 儀禮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Hutchins는 교양교육의 목적이 첫째) 지성의 계발, 둘째) 사유하는 습관과 능력의 계발, 셋째) 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력의 계발에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교양교육의 목적은 곧 대학교육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John Newman이나 Daniel Bell 등도 교양교육을 대학교육의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다(천정미, 2003 : 303-310).

과 교양교육의 관련 및 우선순위는 오히려 정반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홍우의 제안(1989:5-6)에 구체화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학교육의 주된 교육프로그램은 교양교육이어야 하며 전공교육은 그 중에서 한 특정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90년대까지 유지해 온 한국 대학교육과정의 기본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이 원래의 교육적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한국 대학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 개선의 흐름도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의 이념 및 위치 정립과 교양 무용의 교과목 개발과 운영에 따르는 구체적 접근 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 일본 대학들의 교육과정 운영의 추이와 사례를 검토하고 그 기초를 이루는 이념을 탐구할 것이며 개선의 의미 및 필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교양교육에 대한 각 대학들의 이념 및 실제에 관하여 기존의 문헌 및 대학요람과 인터넷 웹 페이지 등에 의존한 이 글은, 각 대학이 기울였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의 내용과 교육목적의 실현 정도 등은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된 조사 연구가 이어진다면 운영에 따르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II . 미국 및 일본의 사례

근래 미국의 하버드대학, 시카고대학, 컬럼비아대학,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그리고 일본의 도쿄대학 등의³⁾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교양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은 전공교육과의 관련을 떠나서 곧, 전공을 위한 준비과정이나 전공에 대한 종속적인 프로그램으로서가 아닌 그 독자적인 지위와 중요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이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목적 -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사고하는 지적 능력의 향상을 통해 점차로 대학의 학문적 활동에 입문되도록 하는, 동일한 목적하의 전체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버드대학의 경우(이홍우, 1989:6, 최미리, 2000:301-303), 1945년의 하버드보고서에서는 교양교육에 해당하는 용어로 general education을 썼고 이는 전공교육 specialization에

3)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선정된 위 대학들은,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중핵교육과정을 시행하면서 교양과정 특히 예술영역이 크게 배려되어 있으며 우수 인력 배출에서 최상위의 평가를 받은 대학들이다.

대비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1979년의 보고서(Report on the Core Curriculum)에서는 general education에 대신하여 core curriculum을, specialization에 대신하여 concentration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변화는 이전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대학교육의 이념을 새롭고 명백하게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아야 하며 현재까지 대학교육프로그램 전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의도가 의미하는 바는 그동안 우리에게 준비 과정 또는 낮은 과정으로 인식되어온 ‘교양교육’은 대학교육의 ‘핵심’ 또는 ‘중핵’(core)이며, 이에 비하여 전공교육은 그 중의 어느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이수’(concentration)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대학 학부교육의 주된 교육프로그램이 교양교육이어야 하며, 전공교육은 그 중 한 특정한 분야의 집중적 이수과정이라는 함의가 잘 드러나 있다. 하버드대학의 중핵과정은 ‘자기 자신과 사회와 우주에 대한 지식과 이해’, ‘비판적 사고와 도덕적 판단력’, ‘다른 시대와 다른 문화에 대한 경험의 확대’를 목적으로 학제적 접근에 준하여 설계된 7개의 영역 - 문학과 예술, 과학, 역사적 연구, 사회적 분석, 도덕적 추론과 외국 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하버드대학에서 제공하는 예술분야는 모든 예술영역을 균형 있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고, 예술에 知的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깊이 있는 감상능력과 비판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Harvard University, 1998 / <http://www.harvard.edu/>).

컬럼비아대학(최미리, 2000:304, 한신일, 2003:100) 역시, 중핵교육과정을 학부교육의 토대로 삼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에게 전공과 상관없이 지적 탐구의 공유된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회와 다양하고 풍부한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세계의 지성을 갖춘 자유시민의 육성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핵 프로그램은 인문학, 주요문화, 현대문명, 음악·미술 인문학, 과학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업은 대부분 소규모의 세미나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대학 경험의 초기에 교수들과 지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한다. 예술영역의 과목은 학생들이 주제 토론 및 현장-공연장 또는 전시장에서 감상-학습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예술적 언어를 이해하고 지적으로 반응하도록 한다. 특히 역사적 관점에서 선별되고 체계화된 명작들의 감상 기회는, 인류문화유산에 대한 세련된 감각과 심미적 태도를 고양시킨다(Columbia University, 1998 / <http://www.columbia.edu/>).

시카고대학(최미리, 2000:303, 한신일, 2003:100-101)은 학부교육 전체를 교양교육(liver education)으로 칭하고 있으며 이 면에서는 선구적인 입지를 확고히 해온 대학으로서, 교양교육프로그램이 ‘교양과정을 통한 폭’과 ‘전공과정을 통한 깊이’ ‘선택과정을 통한 독립적인 정신’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학생들이 생

산적인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양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역시 소규모의 토론식 수업 형태를 최상의 환경으로 제공하고 있다. 내용은 음악 및 무대예술, 자연과학, 사회과학 과 문명연구, 철학·역사·문학의 원전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마다 몇 개의 큰 주제 아래 다시 구체적인 제목을 지닌 여러 개의 과목들로 세분화되며 시리즈의 성격으로 개설된다. 예술영역의 운영은, 무대예술을 포함한 모든 예술분야에서 명작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감상하거나 분석하고 나아가 작품을 독창적으로 창작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러한 과목들은 모두 비전공자를 위한 과목임을 명시하고 있다 (University of Chicago, 1999 / <http://www.uchicago.edu/>).

이외에도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최미리, 2002:129-30. 150-151) 역시, 교양교육과정에 있어 매우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인문학 프로그램’이라는 중핵교육과정을 고안하여 필수로 이수시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전공활동이 어떻게 인간적 관심의 한 부분이 되는지를 깨닫게 하고, 다양한 문화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도록 하며 더 큰 사회에 대한 그들의 책임감을 강조한다. 인문학 프로그램은 모든 자유학문 분야 특히, 역사·문학·철학·종교·자연과학·사회과학·순수예술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인문학 프로그램의 특징 중 하나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고대로부터 중세와 르네상스, 근대 그리고 개인과 현대로 이어지는 4개의 연속·연계과목이 점진적으로 심화되며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예술분야의 지원 예를 보면, ‘아메리카 원주민의 구전문화’, ‘아프리카 북과 이야기’, ‘최근의 러시아 영화 시리즈’ 등, 새로운 자료를 중심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교수와 인턴 그리고 행정가가 참여하는 수일간의 교수개발 집중 연수회 등이 있다. 또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예술의 현장체험 - 견학 활동을 위해 1~3일간의 여행을 실시하기도하며 참여한 행사에 대해 학생들은 비평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교양교육의 목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이 교실에서 일어나는 것 이상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http://www.unca.edu/humanities/>).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의 일본의 대학교육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문 엘리트의 육성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전문성과 실용성이 강조되었으며 교육체계는 획일성이 강하였다. 美軍政期를 거치면서 대중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체제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일반 교양과정에 대한 필수 지정과 이수 의무화 등은 90년대 이전까지 이어져오면서 교양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 부실과 경시를 심화시켰고, 오히려 학과 중심으로 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더욱 주력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 1991년, <대학설치기준>이 개

정되고 대학의 자율성이 확보되면서 각 대학들은 전문인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뜩이나 취약한 교양교육을 더 축소하거나 해체하는 등 위기가 지속된다.

그 중, 거의 유일하게 도쿄대학(성혜경, 2001:255-267, 이향철, 2000:109-110)만이 1993년부터 교양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리버럴 아트(liberal arts) 교육의 확충과 선진화를 목표로 <신 교육과정>을 조직했다. 거기에는,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21세기에는 ‘세계를 상대로 하는 인재-교육받은 시민’의 육성이 요청되는 만큼 ‘유연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미래의 인재-교육받은 시민-를 교육하는 교양과정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배경이 되고 있다.

도쿄대학의 새로운 커리큘럼은 계열의 범주를 넘어서 ‘선택과목의 다양화’ ‘소규모 단위의 수업’ ‘현대의 지적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커리큘럼의 개발’ ‘학문간 상호 교차 커리큘럼의 실현’ ‘정보처리, 문제해결, 자기표현 능력의 함양’ 등을 도모하는 구성체계로 이루어져있다. 분류의 단위는 기초과목, 종합과목, 주제과목으로 나뉘며 6계열 - 사상·예술, 국제·지역, 사회·제도, 인간·환경, 물질·생명, 수리·정보로 이루어져서 그 각각에 첨단 주제를 선정하여 과목을 배치한다. 그리고 전임교원 전원에게 교양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 지원체계가 상당한 실효를 거둔 것으로 나타난다. 교양과정 개혁 후 4년이 경과하여 시행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교양교육 전반에 대해 교수진의 64.8%, 학생의 47.7%가 ‘대단히 좋았다’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주제과목에 대한 관심도와 긍정적 반응은 아주 높게 나타나며 활성화되어 있다.

Ⅲ. 이념적 고려

이상에서 살펴 본 미국 및 일본의 대학들은 교양교육이 학부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체화된 목적과 심화된 내용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 학생들이 어떤 분야를 전공하든지간에 이들 모두가 대학이 엄선한 중핵교육과정을 통해 폭넓고 균형 잡힌 학습, 공통된 학습경험의 공유, 학문적 관계에 의한 전통에 입문함으로써, 중세의 스콜라주의와 고대 희랍의 이상이기도 했던 전인교육의 과정을 능동적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다. 학부에서 제공하는 전공교육 또한 전문적으로 훈련된 전문직업인을 육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으며, 전공의 기초적인 지식의 습득 과정에서 스스로 사고하고 탐구할 수 있는 지적 능력 또는 그에 병행하는 습관을 높이는 데

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지적 습관 또는 능력을 소유한 전인격체의 육성,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유연하고 창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 곧 '교육받은 시민'의 육성이 바로 새로운 대학교육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인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외국대학들의 경험과 사례는, 물론 시간차는 있지만 성격상 유사한 교양과정을 유지해 왔던 한국 대학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도 취업을 위한 전문성과 실용성이 최고조로 강조되는 현실적 요구와 사회지도층 곧 '배운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교육적 회의 사이에서 현재 우리 대학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갈등은, 대학교육에 대한 이념적 고려가 우선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이념적 고려는 교양교육의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 운영에 지침이 될 것이다.

앞의 논의에 이미 시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학교육은 한 개인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받은 교육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완성하기 위한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⁴⁾의 고등과정'으로서,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이라는 두 종류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교양교육은 종래의 개념에서와 같이, 단순히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육으로 나아가는 데에 '완충'의 역할을 한다거나 전공교육의 '준비'라는 성격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시각이 실지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새로운 관점에서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교육의 포괄적인 목적으로 '자아실현'을 들고 있으며,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자아실현은 우리 각자가 자아 곧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홍우(1995:6-11)의 자아이론에 의하면 여기에서의 이 '자아'는 우리 각자에게 의식되고 있는 '자아'로서 곧, '경험적 자아' '심리적 자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좀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자아의 양상'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거기에는 '의식에 파악되지 않는 자아'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우리가 의식하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은 개별적 행위자로서의 나,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 의식의 주체로서의 나, 한시적 생명체로서의 나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 '경험적 자아의 내용'으로서의 '의식에 파악되지 않는 자아'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목적으로서의 '자아실현'은 '자아의 양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욕구의 달성과 그에 따르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자아의 '내용'이 함양되고 풍부해 지는 것이라

4) 자유교육은 인간의 가치를 강조하고 자유와 진리에의 강한 추구를 촉진하는 교육으로서, 세계와 사회에 책임을 갖는 훌륭한 시민-개인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며, 중세의 seven liberal arts에서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희랍의 자유민과의 관련을 나타낸다.

고 볼 수 있다. 이 상태를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는 욕구에 구속됨이 없이 오히려 감각이 이성으로 향하여 있어서 스스로 좋아하는(like) 것이 좋은(good) 것에 일치하게 된다. 이것은 그것이 ‘좋은 이유’를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구속도 강요도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교육받은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교육은 곧, 경험적 자아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스스로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기보다, 자아의 내용을 풍요롭게 하는 일, 자아의 욕구가 이상(ideal/idea) 또는 좋은(good) 것으로 향하도록 하여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을 자유인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IV. 교양교육으로서의 무용의 새로운 접근

교양교육에 대한 종래의 일반적인 통념에 대하여 1989년 서울대학교에 제안된 대안적인 가정(이홍우, 1989:5-7. 이하, 교양교육으로서의 무용의 새로운 접근은 이 보고서에 제안된 방안의 적용에 집중되어 있다)은, 대학의 과정 전체를 고등학교 교육과 동일한 이념 또는 정신에 입각해서 운영하는 방안이다. 예를 든다면,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처음부터 본격적인 대학수준의 교육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대학교육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올 때 일종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학문적 세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종래의 교양과목은 ‘고등학교 교육과 본질상 다름없는 내용을 더 낮은 수준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지각되어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문적 의욕을 상실하고 대학교육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점을 중요시한다면, 교양교육은 전공과정의 ‘준비과정’으로보다는 본격적인 대학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전공교육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모든 단계에 걸쳐 이수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초기단계에서는 오히려 비교적 소규모의 집단으로 운영되는 전공교육을 통해 점차로 대학의 학문적 활동에 입문되도록 하는 것이 더 용이하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 시민사회의 교양 있는 구성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의 함양, 이런 것들은 교양교육에서 전공교육과 공동의 목적 하에 대학의 모든 단계에 걸쳐 본격적인 대학수준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교양교육 전반의 개선 방안이 채택될 경우를 가정하고 여기에서는 앞의 이념적 고려를 실행

하는 예시로서, 무용 관련과목에서의 구체적 접근 방안을 제안하고자한다.

1. 교과목 개발 : 무용관련 교양과목은 실지로 그 교과목을 담당할 교수에 의하여 개발되도록 한다. 이것은 종래의 학과 단위로 제안되고 개설되던 개론 성격의 과목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 교과목의 개발과 담당을 교수의 책임으로 함으로써 그 과목이 교수의 학문적 관심으로부터 유리되지 않을 것이며 교수의 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공분야에 대한 경계선을 이분법, 삼·사분법으로 나누어 마치 분권처럼 강요하고 있는 무용계의 현실에서는 매우 신선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공과목의 담당영역과는 무관하게 교수 자신의 학문적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테마를 개발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다른 전공 또는 유사 전공과의 연계를 통해 아주 새롭고 진취적인 교과목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예컨대 교양교육 담당 행정기구에서 '세계의 무속 춤' 또는 '디지털 댄스'라는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할 경우, 이 교과목의 개발과 운영을 해당 대학 교수진에서 또는 외부 인사에게 의뢰할 수 있을 것이다. 실기과목의 경우(이하 3항 참조)도 마찬가지로 운영 면에서는 더욱 효율적일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개방적이며 능동적인 개발은 교재 과목과도 관련지어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의 특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차별화를 통해 타 대학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

2. 교과목의 성격과 영역구분 : 교수들이 제안할 새로운 방안에서의 교양과목은 종래의 개념에서의 전공과목과 구별될 필요가 없으며, 수강 학생이 모든 전공의 모든 학년으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종래의 전공과목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편성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교양과정의 영역구분은 학생들에게는 균형을 보장하고 교수들에게는 대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따라서 교수가 교양과목을 개발할 때 자신의 과목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가를 결정할 필요는 있으나, 자신의 전공 분야에 특별히 구애될 필요는 없다. 예컨대 '바른 자세와 건강한 삶' 또는 '신체의 아름다움' '한국인의 정서와 탈춤'이라는 교과목은 무용 전공교수 뿐만이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의 공통된 관심사일 것이며, 그 중의 어느 교수에 의해서도 개발될 수 있고 앞 1항에서의 제안대로 연계과목으로 공동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교수가 자신이 개발하는 교과목에 대해 학문적 관심과 교육적 열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3. 교양과정의 이수 : 교양과정의 이수는 저학년에 집중될 필요가 없이 모든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하며, 교과목에 따라서는 오히려 저학년 학생은 이수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과목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무용 비평’과 관련된 과목의 경우 내용상 美學 일반에 관한 과목의 우선 이수가 요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양과정에서의 무용 관련 실기과목은 다른 예체능 실기과목과 더불어 이수 방법을 점수제나 등급제가 아닌 당락만을 결정하는 pass·fail system(無 학점, 졸업 필수과정)으로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른 영역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이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이수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대구 지역의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무용 실기를 개설한다고 볼 때, ‘지역문화 배우기’와 관련하여 ‘안동 하회탈춤’ 또는 ‘달구벌 덧배기춤’을 개설한다면, 학생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대학에서 개설한 강좌를 통해 또는 외부의 전수관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혹은 방학을 이용한 현장 학습을 통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시험을 위한 준비는 학생 개개인이 해야 하고 물론 출석에 대한 요구도 없다. 대학은 다만 그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예체능 실기과목을 無學點으로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개인적 필요와 교양과정 이수에 편의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목들은 매학기 다양한 종목들을 필요한 수만큼 개설하고, 전문적인 코치 수준에 있는 강사들에게 위촉함으로써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V. 결론: 현실적 고려

앞에 예시된 방안의 한국에서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 문제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위 이념의 시행 방안은 사실상 1980년대부터 부분적으로, 90년대부터는 적극적으로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해 온 방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종래의 형태와 새로운 형태가 병렬을 이루어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시행 도중의 문제사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재조명의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⁵⁾ 그리고 앞에서 살펴 본 외국

5) 2장에서 사례로 살펴본 외국의 대학들은, 어떤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이든지 모두가 대학이 엄선한 중핵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여 폭넓고 균형 잡힌 학습을 하고 공통된 학습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대학교육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물론 엄선하여 개설한 소수의 중

대학들의 교양과정은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실험 과목들을 전면적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김우식, 2001:49-53, 이홍우, 1989:8). 그러므로 이념의 구현에 따른 '현실성' 문제가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이 문제에 관한 대학 내의 시각이 대체로 부정적인 것은 교육 행정부서의 행보와 대학 실무의 행보 사이의 간극 - 어찌면, 대학 교육과정 개선의 필요성 및 그 기초의 이념에 대해 교수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에서 온 간극이, 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동안 정부 및 대학의 행정 부서에서는 학부제, 부전공제, 복수 전공제 등을 통해 대학전체프로그램의 개선을 유도하였으나 앞에서 지적한 바대로 직접적으로 교과목을 개발하고 수업을 담당해야 할 대부분의 교수들에게는, 현행 프로그램으로도 전문가 육성이 어려운 지경에 새로운 방안은 이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의 보완을 위해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각 대학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각종 세미나 및 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수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에 의거하여 볼 때, 새로운 방안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현실적 제약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학 교양과정의 기본 이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것은 교양교육 중심의 대학교육이 성격상 고등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심화한다는 것, 그래서 대학의 교과목은 '대학교육에 알맞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음은 현실성 문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이 새로운 방안의 실현 가능성 여부는 각 대학의 교수들이 얼마나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교수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핵과목들도 영역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주어진 범주에서의 자율적 선택은 보장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선도적 대학들도 영역을 구분하고 다수의 다양한 교양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나 중핵으로서의 이수 규정이 지극히 미약하고 과목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 개인의 선택에 의해 보편성을 획득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학문분야를 연계하거나 주제 중심으로 고안한 학제적 접근의 교과목 개발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우식(2001), “대학교육과정의 개선 -연세대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마당21**, 234호, 교육인적자원부.
- 성혜경(2001), “일본 대학의 교양교육 개혁 -도쿄대학의 사례-”, **인문논총** 8, 서울여자대학교.
- 이향철(2000), “일본 대학의 교양교육”, **인문사회과학논문집**, 제29집, 광운대학교.
- 이홍우(1989), “교양교육의 새로운 방향”, **서울대학교 연구과제 보고서**.
- _____(1995), “교육의 목적”, **한국교원대학교 세미나 자료집**.
- 천정미(2003), “R. M. Hutchins의 교양교육의 개념과 대학교육의 목적”, **교육철학**, 제23집, 한국교육철학회.
- 최미리(2000), “한,미 주요 대학의 교양교육 비교 분석 연구”, **교육행정연구**, 18권, 한국교육행정학회.
- _____(2002), “미국 대학 중핵 교양교육프로그램 사례연구 -North Carolina 대학의 Humanities Program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연구**, 제13권 1호, 한국고등교육학회.
- 한신일 외(2003), “미국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비교 분석 -2002년 미국 Top 10 National Universities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제13권 1호, 한국비교교육학회.
- Columbia University(1998), Catalogue 1998-1999 New York, NY Columbia College.
- Harvard University(1998), Course of Instruction 1998-1999 Faculty of Arts and Scienc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University of Chicago(1999), College Courses and Programs of Study 1999-2000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 <http://www.cataegu.ac.kr>
- <http://www.columbia.edu/>
- <http://www.harvard.edu/>
- <http://www.snu.ac.kr>
- <http://www.uchicago.edu/>
- <http://www.unca.edu/humanities/>
- <http://www.yonsei.ac.kr>